

교과서의 전환, 브리태니커식에서 위키피디아식으로



양효준

경기 선행초등학교
교사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모든 것이 있다.”

1768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ædia Britannica)을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브리태니커 사전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1974년, 4천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마지막 15판의 표제어(정보 및 지식)는 약 12만 개에 달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Wikipedia)가 등장하면서 200년 넘게 지식의 왕좌에서 군림했던 브리태니커 사전의 사용자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브리태니커 사전의 판매량은 급감했고, 결국 2012년에 절판됐다. 이는 사람들이 사전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지식을 생성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위키피디아는 각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전을 사용하는 일반인이 참여하여 표제어를 만든다. 2001년 1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위키피디아는 20년 만

에 5,500만 개의 표제어를 탑재했고, 1초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은 8,000회 이상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읽고 있다(위키피디아 재단, 2021). 위키피디아에서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표제어를 등록하고, 기존의 표제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그 결과 위키피디아에 등록된 표제어는 빠르게 팽창하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전을 사용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전에서 설명하는 표제어에 관한 내용이 정교해지면서 신뢰성도 높아졌다. 위키피디아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과학 분야 표제어의 오류 비율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사전의 오류 비율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과(Giles, 2005)가 이를 방증한다.

사용자들은 왜 브리태니커 사전에서 위키피디아로 이동하는가?

브리태니커 사전과 위키피디아는 모두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지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브리태니커 사전은 전문가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정확한 지식을 담는다면, 위키피디아는 어떤 사용자가 등록한 표제어에 후속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이를 수정해가며 점점 더 실용적인 지식으로 만들어 간다. 즉 브리태니커 사전은 오류 없는 지식 제공에 초점을, 위키피디아는 사용할 수 있고 실제적인 지식 생성에 중점을 둔다. 전문가가 지식을 창조하는 권한을 독점하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개인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기존 지식을 응용하거나 새로운 지식으로 창조해서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전 사용자들은 브리태니커 사전에서 제공하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지식의 생성 가능한 공간인 위키피디아로 이동한 것이다.

지식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브리태니커 사전에서 내용 오류는 치명적 결함으로 보지만, 위키피디아에서 오류 문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이러한 오류는 사전 사용자들이 지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터링된다. 위키피디아가 별도로 표제어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위키피디아의 표제어는 자연스럽게 보완·수정·삭제된다. 이처럼 브리태니커 사전과 달리 위키피디아에서 하나의 표제어는 후속해서 새로운 지식이 탄생하기도 하며, 기존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으로 탈바꿈하기도 하고, 지식이 소멸되기도 한다. 즉 위키피디아는 지식 생성의 공간이다.

브리태니커 사전 사용자들이 위키피디아로 이동하는 현상은 교과서 개발과 인식 변화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브리태니커 사전과 교과서의 개발 방식은 유사하다. 첫째, 브리태니커 사전과 교과서 둘 다 다수의 저자(개발자 혹은 집필자)가 참여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브리태니커 사전을 개발하듯이 교과 전문가, 교사, 심의자, 편집자 등이 참여하여 교과서를 개발한다. 둘째, 브리태니커 사전과 교과서는 오류 없는 지식을 담는다. 브리태니커 사전이 전통적으로 오류 없는 지식을 지향하듯이, 교과서는 개발과정에서 공개 검토는 물론 개발 후에서 해마다 의견 수렴 및 개정을 통해서 오류 없는 지식을 담는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브리태니커 사전과 교과서의 개발자와 사용자가 철저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브리태니커 사전과 교과서 개발자는 기존의 것을 개정하든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지만, 사용자는 개발된 결과물로서 브리태니커 사전과 교과서를 사용할 뿐이다. 이처럼 교과서 개발은 ‘브리태니커식’이었다.

그럼 ‘위키피디아식’ 교과서 개발이란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 첫째, 교과서 사용자도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전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도 교과서 사용자가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개발한 교과서를 검토하는 수준이었다. 교과서 개발과정에 교과서 사용자는 교과서 개발자를 돕는 도구적 위치나 존재로서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소극적으로 참여할 뿐이다. 그러나 위키피디아식 교과서 개발에서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에서 사용자들도 표제어를 등재하고, 정련·창조하는 과정에 개입하듯이, 위키피디아식 교과서 개발에서는 교과서 사용자, 특히 교사나 학생은 자신이 가르치고 혹은 배우는 내용으로 교과서 지면을 구성한다. 교과서 사용자를 교과서 개발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고, 서책형 교과서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교과서에서 교과 지식을 넘어서 생활 지식까지 다룰 수 있다.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다루는 지식은 브리태니커의 표제어처럼 전문가들이 검증하거나 합의한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이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에서는 전문가들이 검증한 객관적인 지식외에도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지식도 표제어로 삼을 수 있는 지식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AFP 통신은 한국의 ‘얼죽아(Eoljukah,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현상을 보도했다. ‘얼죽아’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문화와 긴 문장의 앞글자를 따 줄여 말하는 문화가 합쳐져 탄생한 신조어로, 위키피디아에서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문화로서 ‘얼죽아’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위키피디아에서는 공적 지식 뿐만 아니라 생활(삶이나 일)의 영역에서 살아 있는 지식까지 표제어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사실 이미 교과서에서도 학생들이 생활하는 영역의 정보나 지식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형태의 지식, 할아버지께 들었을 법한 이야기, 학생이 주말에 경험한 이야기 등이 있다. 이제 교과서도 교과 지식을 넘어서 생활 영역의 지식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사용자가 지식을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지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사용자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지식으로 재탄생한 지식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브리태니커식 교과서 개발에서 위키피디아식 교과서 개발로 이동하는 모습은 산발적이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이 필요하고 원하는 차시를 교실에서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합교과 교과서의 구성 차시(blank lesson), 국어 교과서의 독서 단원, 과학 교과서의 탐구 단원, 도덕 교과서의 우리가 만드는 수업 등이 대표적인 위키피디아식 교과서 모습이다.

비록 교과서는 위키피디아처럼 새로운 표제어를 생성할 수 있는 하얀 도화지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직접 채워 넣을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과서의 여백에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기존의 교과 지식을 접하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싶거나 우연히 알게 된 것들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는 교과서가 교실에서 지식을 창조해 볼 수 있는 공간이기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도 그리고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미래에는 누구나 기존 지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 지식이나 방법론, 즉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과정 자율화, 학생 주체성을 떠올려 보았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브리태니커식에서 위키피디아식 교과서를 상상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아이디어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참고 문헌

- AFP(2023). Coffee so cold it's hot: South Korea's love of iced Americano,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30210-coffee-so-cold-it-s-hot-south-korea-s-love-of-iced-american>. 인터넷 신문기사(2023. 7. 25.접속)
- Jim Giles(2005). Internet encyclopaedias go head to head. *Nature*, 38, 900-901.
- 위키피디아(202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 (2023.7.25. 접속).
- 위키피디아 재단(2021). <https://wikimediafoundation.org/wikipedia20/>.

필자 소개

10년 차 초등교사이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중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과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교육과정 개발, 교사교육과정 등이다.